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가녀장의 시대 / 이슬아
어떤 이유로 이 책을 읽게 되었나요?
이슬아 작가의 책 중 제목이 독특해서 한 번, 브런치 독서 챌린지 참여로 다시 한번 읽게 됨
다른 회원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에서 좋았던 구절을 읽어주세요.
작가의 말) 이것은 제가 아직 본 적 없는 모양의 가족드라마입니다. 능름한 아가씨와 아름다운 아저씨와 경이로운 아줌마가 서로에게 무엇을 배울지 궁금했습니다. 실수와 만회 속에서 좋은 팀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했습니다. (...) 이런 이야기를 TV에서 보고싶다고 생각하며 썼습니다. 길고 뿌리깊은 역사의 흐름을 명랑하게 거스르는 인물들을 앞으로도 쓰고 싶습니다.
p.23) 그들의 집에는 가부장도 없고 가모장도 없다. 바야흐로 가녀장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p.31) 그들이 일하는 작은 회사의 이름은 낮잠 출판사다. 아무리 바빠도 낮잠은 꼭 챙기는 슬아가 운영한다. 슬아는 두 명의 직원을 두었다. 바로 복희와 웅이다. 슬아의 모부이기도 하다. 동갑내기 부부인 그들은 자식들을 몹시 사랑하였고, 블루칼라로 직업을 열다섯번 정도 바꾸며 생계를 부양했다(...) 딸은 들풀 같은 작가가 되었고, 아들은 들개 같은 음악가가 되었다. 서른 살이 되던 해에 슬아는 돌연 모부와 합가를 하기로 다짐했다. 출판사를 가족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는 자신의 새집을 출판사 겸 가정집으로 꾸몄다. (...) 집밖에서 바라보면 가녀장의 서재에는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다. 그곳에서 반복하는 노동이 세 사람 몫의 생활비가 된다.
p.39) 스물두 살의 슬아가 작가로 데뷔했을 때 할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는 상인들의 집안에서 작가가 나왔다고 기뻐했다. 할아버지에게 작가란 기본적으로 남자였다. 슬아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p.41) 그 후로 팔 년이 흘렀다. 집안은 슬아 중심의 가녀장 체제로 재배치되었다. 오늘날 복희와 웅이는 슬아 밑에서 일한다. 출판사 업무뿐 아니라 집안일도 부부의 몫이다. 웅이가 주로 청소와 빨래를 하고 복희가 부엌일을 책임진다. 복희의 월급은 웅이의 두 배다. "엄마의 노동이 아빠의 노동보다 대체 불가하기 때문이야." 가녀장이 말한다. 삼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희의 노동은 크게 다르지 않다. 가부장제 속에서 며느리의 살림 노동은 결코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다. 슬아는 복희의 살림노동에 월급을 산정한 최초의 가장이다. 살림만으로 어떻게 하루가 다 가버리는지, 그 시간을 아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 때문에 그는 정식으로 복희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다. 복희는 음식을 만드는 데만은 천재다. 슬아는 복희의 재능을 사서 누리고, 복희는 가장 잘 하는 일로 돈을 번다. (...) 이들에겐 좋은 것만을 반복하려는 의지가 있다.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것을 반복하지 않을 힘도 있다.
책이 좋았던 이유와 감상에 대해 말해주세요.
이슬아에 대한 생각: 분명한 입장, 명랑함, 모자란 구석, 실수를 만회하려는 노력, 누군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책 전체에서도, 첫 페이지에 직접 쓴 서문에서 그런 마음이 보인다.